

[건강·의료]

M 의료 라운지
edical lounge

메스 대지 않는 '최소침습술'(복강경) 각광

최소 절개로 흉터 걱정 없어요



“그림 그리며 구강보건 지식 배워요”

광주시 치과의사회 주최
초·중학생 사생대회 열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낙현)와 대한구강보건협회 광주지부(지부장 김안철)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사생대회'가 지난 21일 개최됐다. <사진>

광주 어린이대공원 내 야외공연장에서 오후 2시부터 초·중학생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글짓기, 그리기, 표어, 포스터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광주시치과의사회 김낙현회장은

“초·중학생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려면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글쓰기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구강보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은 오는 6월9일 '구강보건의 날'에 시상한다. 수상작 일부는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포스터·표어·글짓기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오는 6월3일부터 8일까지 금남로4가 지하철역에서 전시된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전남 장애인 치과센터 건립 추진위’ 결성

광주·전남지역 장애인들의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광주전남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결성된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광주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치과진료의 특수성에 비해 장애인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및 인력이 없어 장애인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치과진료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건립을 위한 시민들의 여론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4일 광주시 동구 KT 건물 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오래전 갑상선 제거 수술을 했던 주부 정모(47)씨의 고민은 목 부위에 빨갛게 남은 흉터다. 흉터를 줄이기 위해 바르는 연고와 상처 치유 보조제 등을 사용했지만 수술 전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무리였다. 정씨의 고민처럼 '수술 자국'은 수술의 '또 다른 후유증'이라 불릴 정도로 환자들의 고민거리였다.

최근에는 피부를 최소 부위만 절개하고, 수술 후 통증도 예전에 비해 적은 '최소침습(最小侵襲)술'이 각광받고 있다. '복강경' 또는 '내시경 수술'로도 불리는 이 기술은 흉터가 적게 남고, 수술 후 통증이 적어, 입원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최소침습술센터를 호남지역 최초로 개소한 화순전남대병원(2004년 개원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2529건의 복강경수술을 시행했으며 이중 관절 치료가 5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위암·급성충수염 등이 423건, 폐암·식도암 등에서 362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가외의 모든 분야에서 시행=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거의 모든 의료분야에서 최소침습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로 대장암, 위암, 급성충수염, 담석, 비장절제, 갑상선암, 폐암, 식도암, 난소암, 자궁암 등과 간암, 담도종양, 담석, 췌장 종양, 비장 종양, 신장암, 전립선암, 여성유방암 등에서 시술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위장관암클리닉 김형록교수는 “개복수술에 비해 긴 수술시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몇몇 수술기구 등이 장애요소”라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최소침습술은 ▲복강경수술 ▲흉강경수술 ▲관절경수술 ▲김마니라프시술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화순전남대병원의 복강경 수술 장면.

통증 적고 회복 빨라 입원기간 단축 관절경 등 거의 모든 분야 수술 가능

며 “그러나 개복 수술 시 길게 소요되는 상처 봉합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실제 수술시간에 긴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비디오 모니터 보며 수술=예를 들어 흉강경 수술의 경우 양쪽에 있는 폐 중 한쪽 폐 공기를 빼내게 된다. 이때 바람이 빠진 폐의 공간에 흉강경을 삽입해 비디오 모니터를 보며 수술을 하게된다. 피부 절개는 10mm와 2mm 정도로 3~4군데, 화순 전남대병원 흉부외과 나국주교수는 “2mm 피부절개는 후에 흉터가 아예 남지 않는

것을 빼내게 된다. 이때 바람이 빠진 폐의 공간에 흉강경을 삽입해 비디오 모니터를 보며 수술을 하게된다. 피부 절개는 10mm와 2mm 정도로 3~4군데, 화순 전남대병원 흉부외과 나국주교수는 “2mm 피부절개는 후에 흉터가 아예 남지 않는

다”고 말했다.

▲복강경 수술이 각광받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용'적인 측면이다.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3~4개의 구멍만으로 내시경과 수술 기구를 통과시켜 비디오 화면을 통해 시술하기 때문이다.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흉터가 크게 남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모든 수술에 쓰이는 것은 아니고,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거나 진행되지 않은 암 등에서 시도되고 있다.

▲가장 인기있는 분야는 관절=요즘에는 노령인구 뿐 아니라 젊은 연령에서도 관절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에도 폐경이 앞당겨지며 호르몬 영향으로 관절에서 일찍 마찰을 일으킨다.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무릎·어깨·팔꿈치·손목 등 관절과 고관절(엉덩이 관절) 등에서 관절경 시술을 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송은규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정형외과 수술의 3분의 1, 무릎 관절의 경우엔 95%가 관절경을 이용한 시술”이라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도움말=화순전남대병원 위장관외과 김형록 교수·간담체외과 조철균 교수·내분비외과 윤정환 교수·흉부외과 나국주 교수·산부인과 김석모 교수·비뇨기과 권동욱 교수·정형외과 송은규 교수·신경외과 정진 교수

복지부, 내달부터 건보 적용

다음달 1일부터는 그동안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듯 돼있던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 비용과 내시경 수술 치료재료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비 등 환자부담 크게 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담당절제술시 치료재료

본인부담이 이전 61만 3690원에서 7만 714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심근경색증 환자는 PET 촬영을 할 때 13만원, 간암환자는 암치료 효과를 점검 검사에서는 15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간질환자와 폐암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50%가 적용돼 각각 37만원, 43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전에는 한번 촬영에 보통 100만원 넘던 비용이 최대 80%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복강경·흉강경·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금을 기존 100만원 수준에서 10만~20만원 정도로 축소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순간가열식 전기보일러
실용성사
www.kw.com

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안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안과
www.damyang.co.kr

BRAVIA
www.samsung.com

영무플러스존 분양!
www.ymplus.com